광주 충장로는 지금 SPA 브랜드 전쟁중

〈제조·유통 일괄화 의류 매장〉

‘자라’ ‘유니클로’에 ‘H&M’ ‘스파오’ 가세

저렴한 가격·다양한 디자인 젊은층 이끌어

‘패션의 거리’ 광주 최대 상권 충장로 일대가 국내외 SPA(제조·유통 일괄화 의류 매장) 브랜드 각축장이 되고 있다. SPA 브랜드는 저렴한 가격과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경기 불황과 위축된 소비심리의 틈을 파고들며 젊은층 소비자의 대세가 됐다.

9일 의류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충장로 일대에는 장기적인 불황 속에서도 스페인의 ‘자라’와 일본의 ‘유니클로’ 등이 일찌감치 입점해 지역 오픈매장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었지만 최근 ‘에잇세컨즈’(제일모직) ‘스파오’ ‘미쏘’(이상 이랜드), ‘탑텐’(신성통상) 등이 ‘NC WAVE 충장로점’에 대형매장을 내며 대거 가세해 새로운 전쟁터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스웨덴의 ‘H&M’ 등 외국계 브랜드와 최근 광주에 입성한 스파오 등 토종 브랜드와의 각축전도 초미의 관심거리이다.

아직까지는 브랜드마다 지역 입성으로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고, 각각 경쟁업체를 의식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실적을 따질 수는 없지만 향후 판도 변화와 매출 등도 업계의 주목을 사고 있다.

■ 충장로 일대 SPA브랜드 입점현황

업계에선 현재까지 외국계 SPA 가운데 가장 먼저 국내 매장을 낸 유니클로가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저가 브랜드라는 이점에다 ‘한국 소비자에게 사랑 받는 브랜드로 성장을 위해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장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다.

지난 5월 ‘와이즈 파크’(Y’ Z PARK)에 대규모로 입점한 H&M 역시 실적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9년 충장로에 입점한 자라 역시 점포를 새 단장하는 등 경쟁업체의 파상적인 공세에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러한 파상적인 공세에 기존 오픈매장들은 울상이다.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들 점포에 상권을 빼앗기면서 장사를 접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점포가 늘고 있다.

요즘 충장로 상가에서는 ‘장사는 안 되는데 자고 나면 대형 브랜드 화장품샵이 생기고 또 다음 날엔 SPA 매장이 생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로 충장로 2가에는 ‘후아유’ 매장이 7월 개장을 준비하고 있고, 충장로 인근 황금동에 스트리트형멀티테마 상가인 ‘로드힐스’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SPA 브랜드 입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장로 일대 한 상인은 “SPA 매장의 활성화로 젊은층이 많이 유입되면서 주변상권까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건 사실이다”며 “SPA 매장이 대세인 만큼 개점하는 점포들이 늘어날 것이며 경쟁 또한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어촌공사-해수부, 어촌양식 협력 양해각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와 해양수산부(차관 손재학)는 9일 세종시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어촌양식분야 협력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내수면의 종합적 개발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 ▲유휴간척지를 활용한 대단위 양식단지 개발 ▲어촌특화발전사업 추진 등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토 면적의 약 7%를 차지하는 내수면의 친환경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도모키위해 생태목장 개발, 대단위 양식단지 조성, 어도종합관리 등도 함께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5월 가계 대출 잔액 660조… 사상 최고치

가계 대출 잔액이 석 달 연속 늘어나 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5월 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59조8771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3조3979억원 증가했다. 이는 종전 최대치인 작년 12월의 잔액(659조8583억원)을 5개월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작년 12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서 올해 2월 654조4000억원까지 두달 연속 줄었다가 3월 6000억원, 4월 1조4000억원 각각 늘어나는 등 석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다시 고공행진 중이다.

1년 전과 비교한 대출잔액은 2.7% 늘었다. 4월에는 작년 동월보다 2.6% 증가했다. 대출 잔액을 한달 전과 비교하면 마이너스통장, 예·적금담보대출 등 (256조8000억원)이 1조4000억원 증가했고 주택대출(403조1000억원)은 2조원이나 늘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농수산물 수출 회복세

5월 4300만달러… 전년 동기보다 5.2% 증가

5월 들어 광주·전남 지역의 농수산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5월 광주·전남지역 전체 수출실적은 4303만4000 달러로 전년 같은달(4090만달러)보다 5.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산물 수출 실적은 9.9% 증가(1458만 달러→1602만3000 달러)했고, 농·축·임산물은 2.6% 증가(2632만 달러→2701만1000 달러)했다.

올해 광주·전남 지역의 농수산물 수출 실적을 보면 1월에 농·축·임산물 +19.6%, 수산물 +21.8%를 기록한 이후 2월 농·축·임산물 -10%, 수산물 -17.5%, 3월 농·축·임산물 -1.2%, 수산물 -36.8%, 4월 농·축·임산물 +16.8%, 수산물 -17.4% 등으로 대체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누계 수출 실적은 1억7355만5천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1억7653만5000달러)보다 1.7% 감소했으며 그 중 수산물 수출 실적은 엔저 등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11.8% 감소한 6038만2000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T 광주전남지사는 수출물류비 5~7월 선적분에 한해 추가 인센티브 지원, 신규 환변동보험 보장 내용 확대, 수출자금 300억원 추가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호우 피해 농가 방문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는 지난 8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시 남구 화장동 농가를 방문해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신용카드 항공 사망보험 혜택 전면 중단

9월부터… 1천만명 회원 불이익 반발 클 듯

사망시 최고 5억원을 보장해주는 신용카드 항공 사망 보험 서비스가 9월부터 전면 중단된다.

최근 아시아나항공기 사고로 항공보험에 관심이 커진 상황이어서 카드사의 이런 부가 혜택 중단을 놓고 고객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9월부터 사망 담보를 제외하고 항공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단체보험은 상해 뿐만 아니라 사망까지 담보해주는 상품으로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카드 회원에게 여행 중 사고 발생 시 무료로 배상해주는 서비스다. 이런 부가 혜택을 받는 카드 회원만 10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신한카드는 ‘Trabiz 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던 항공 사망 보험 서비스를 8월 30일까지만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해외여행에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최고 5억원 보상했으나 사망은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해외여행 중 배상책임 최고 500만원과 여행 불편 보상 최고 300만원은 유지된다. 신한카드 측은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은 피보험자의 개별 서면 동의가 필요해짐에 따라 해당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사망 보험 외 항공 상해보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보험사들이 변경된 규정을 이유로 카드사에 항공 상해보험 제휴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발생했다.

감독 당국이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 대해 피보험자로부터 개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항공상해보험은 단체보험이어서 개별 동의가 돼 있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신용카드 항공상해보험 서비스 자체를 없애려고 했으나 감독 당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사망 담보만 빼고 나머지 보험 서비스는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연합뉴스

한국인 가장 많이 먹는 수입 과일은 바나나

10년 연속 1위… 오렌지·파인애플·포도 순

한국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입 과일은 바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관세청이 공개한 ‘최근 10년간 주요 과일류 수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바나나 수입량은 36만8000t으로 전체 수입 과일 가운데 48.7%를 차지하면서 10년 연속 1위를 고수했다.

이어 오렌지(17만4000t), 파인애플(7만3000t), 포도(5만9000t), 키위(2만9000t)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총 과일 수입량은 75만4000t(1조3000억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수입량은 69.2%, 금액은 162.4% 증가했다. 또 올들어 지난 5월까지 과일 수입은 37만7000t(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입량은 12.6%, 금액은 6.9% 각각 감소했다. 수입 과일은 수급 조절을 위한 대체재 역할을 하는 만큼 국내 과일 생산량이 저조할 경우 수입이 증가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과일 생산량이 감소한 2006년과 2010~2012년에는 과일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수입 동향을 보면 지난해 기준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수입량의 93.1%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바나나와 오렌지가 71.8%나 됐다.

반면 망고, 멜론 등 상위 10위 미만 품목의 총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1.1% 수준에 불과했다. /연합뉴스